

[TV]

TV 8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스파이더맨3' 스크린 독과점 논란

800여개 상영중... 정치권 등 일부 규제 움직임

개봉 6일만에 256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스파이더맨 3'을 둘러싸고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정책 및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극장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영화관들과 맞달도 예상된다.

지난 1일 전세계에서 최고 개봉한 '스파이더맨 3'은 6일까지 256만명을 동원하며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

반면 맞대결을 벌였던 장진 감독의 '아들'은 6일까지 24만9천 명을 끌어모으는데 그쳐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스파이더맨 2'의 관객이 230만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흥행속도는 기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대적할 만한 한국 영화가 없었다는 점도 흥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봉 첫날 617개 스크린에서 시작한 '스파이더맨 3'은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국내 스크린 1천800여 개 가운데 무려 817개 스크린에서 상영중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



800여개가 넘는 스크린에서 상영돼 독과점 논란을 낳고 있는 영화 '스파이더맨 3'.

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 롯데 시네마의 경우 6개관 중 3개관에서, 메가박스 광주점은 9개관 중 역시 3개관에서 '스파이더맨 3'을 상영중이다.

한 영화진흥부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측은 6일 '스파이더맨 3'가 한국 스크린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영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은 "독과점으로서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화제작자협회 및 영화노조 등과 함께 '스파이더맨3'로 인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 뜻을 모은 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화관측 관계자들은 "올 상반기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적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스파이더맨3'의 매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극장이 더 많은 상영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괴물'에 이어 '스파이더맨3'도 다시 불붙은 독과점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3' '슈렉 3'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속속 개봉할 예정으로 있어 당분간 영화계의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KBS, 수신료 인상 본격 추진

"디지털 전환으로 수천억 추가 비용 소요"

KBS가 수신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S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에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비용 부담에 따른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KBS는 9월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KBS 이사회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최병만 KBS 홍보팀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해마다 4천억~5천억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만일 올해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2년까지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BS는 4월30일까지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보청기 (Kijeo) advertisement with details on features and prices.

케이블·위성TV 8월

Large table listing various TV channels (YTN, MBN, KTV, MBC, SBS, etc.) and their program schedules.

PBC 광주지방방송 (PBC Kwangju Local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

TBN 교통방송 (TBN Traffic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

BBS 불교방송 (BBS Buddhist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